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용 도 가동: 주택 및 사무소, 나동: 작업장, 다동: 휴게음식점
대지면적 3,745㎡
연 면 적 661.95㎡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사용승인 2018년 10월



산노루, 제주의 자연을 담다. 올레길 / 녹차 / 대지 / 바람

올레길
원래 이곳은 행인의 이목을 끌거나 머물 수 있는 지형은 아니었다. 오히려 아무렇게나 자란 울창한 숲으로 일체의 접근을 거부하는 원시림 그 자체였다. 우리는 주변의 끝없이 이어지는 낮은 지형과 검붉은 대지의 컬러 그리고, 제주의 햇살과 바람, 부지를 스쳐 지나가는 올레길에 주목했다. 현재 제주의 올레길13코스를 따라 걸다보면 한경면 어귀에서 붉은 벽돌 건물 3동의 산노루를 만날 수 있다.

녹차
제주에는 세계 3대 녹차 생산지이다. 산노루는 제주의 다원에서 생산된 차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판매를 통해 우리만의 고품질 녹차 문화를 개발하고 소개하고 있다. 설계는 생산지로서의 자연 환경적 맥락과 차가 만들어지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일관성 및 수공예적인 작업 공정이 담백하고 심플한 건축의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발현되는 근본적인 가치에 집중하였다.

대지
밝은 햇살에 빛나는 검붉은 대지는 녹차의 칼라와 서로 선명한 보색의 대비를 이룬다. 붉은 벽돌 외장은 조경 및 실내의 초록빛 식재들과 대비를 이루며 들을 쌓기를 통해 생성되는 질은 음영으로 구속에 의해 대비의 효과가 더욱 배가되도록 의도하였다.

바람
구멍이 송송 뚫리게 쌓은 제주의 현무암 돌담은 본래 바람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쉽게 통과 되도록 있을 필요가 있었다. 방향성 없이 들이치는 비나 바람으로부터 제주에서의 일상은 가벼운 외부 환경조차 여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바람계의 마당 (Pinwheel-Shaped Space)이 만들어졌다. 이 마당은 3동의 건물 매스에 의해 둘러싸여진 외부 공간이며, 평탄한 자연지형의 한가운데 비워진 중심 공간인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 온풍일 자연채광이 들며, 사적공간과 연구, 실형을 위한 공적공간 사이에 머무를 수 있는 매개공간이다. 바람이 없는 공간(Halling space)이자, 바람으로 열린 중심적 공간이 된다.

